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간

이렇게 완치했다.

『처음에는 간염이었는데 점차 나빠지면서
간기능까지 나빠지기에 이르렀읍니다』



성명 : 김 옥 순
나이 : 37세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64번지
직업 : 주부
가족 : 남편 김광수 씨와 1남1녀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정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또 있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간기능장애로 고생하기 시작...

현대의 바쁜 생활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도 외시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건강인것 같다. 요즈음 들어 주위에서 한두 종류의 병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의 드물 정도이다. 누구는 위장병, 또 누구는 고혈압 누구는 무엇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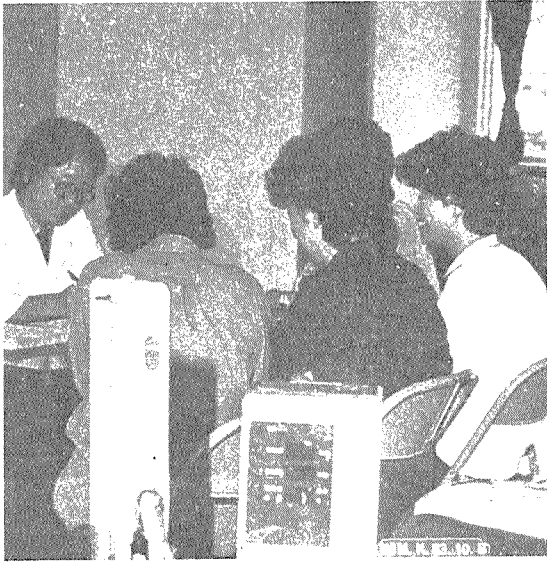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3동 1264번지 에 살고있는 김옥순씨 (37세·여).

부군 김창수씨 (39세) 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어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주위 사람들과도 서로 도와가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가정주부이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간기능장애로 고생하기 시작한 것은 2년쯤 전의 일이라고 한다. 그후 우연한 기회에 건협 부산지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한 끝에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 졌다는 김옥순씨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한번씩 돌이켜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정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또 있겠어요.』 기자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김옥순씨의 감격에 찬 첫마디다.

『꽤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인데, 병원에 갈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걸 보다못한 동네 분들이 반사회보에서 건강관리협회에 관한 내용을 봤다면서, 앉아서 앉지만 말고 한번 가보라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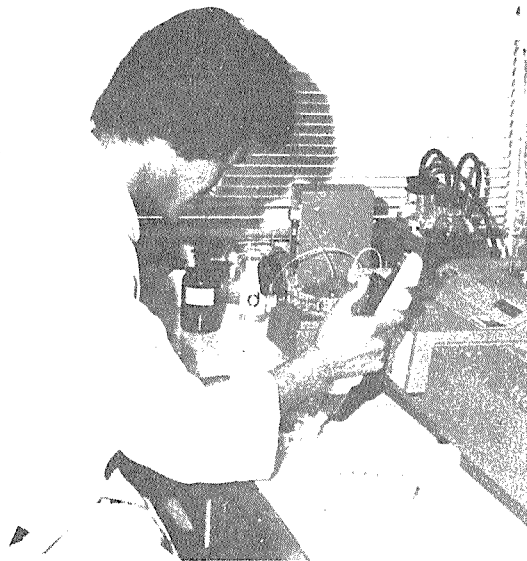
업무는 내지도 못했구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 그저 끄끄 앓기만 할 수 밖에 없었지요.』 라면서 김옥순씨는 좀더 빨리 견학을 알게되었다면, 그리고 평소에 조금이라도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소화도 잘 안되구요,
얼굴도 좀 누렇게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검사받기 반년쯤 전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되구요. 얼굴도 좀 누렇게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옥순씨가 얘기하는 초기증상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울때가 많았지만 소화가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약방에서 약을 지어먹기도 하고, 좀 심할 때는 근처 병원엘 가보기도 했지만 소화불량이라고 며칠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낫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소화제 대신 소주를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주를 마셔보기도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신 소주가 병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아요.』 라면서 김옥순씨는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것이 엄청난 실수였는지는 정말 몰랐다면 자기의 건강에 대한 무지를 후회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걸 보다못한 동네 분들이 반사회보에서 건강관리협회에 관한 내용을 봤다면서, 앉아서 앉지만 말고 한번 가보라는 권유를 해왔

“마침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근처에 있고 해서 작년 가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입니다.』 김옥순씨는 견학을 알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동네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감사해했다.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에 서로를 아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않는 이들의 순박함에 기자도 감동하지 않을수 없었다.

『마침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근처에 있고 해서 작년 가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조금도 잊지않고 있다면서 견학을 찾아와 검사를 받던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김옥순씨였다.

『작년 9월19일이었지요. 검사소에서 간단히 상담을 한 후 피를 뽑고 소변도 받았지요. 그리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결과 통보는 집으로 보내주겠다면서…….』

그후 결과통보서를 받기까지는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굉장히 불안했다면서 그저 별것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고 김옥순씨는 당시의 기분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간기능에 이상이 있으니 재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기능에 이상이 있으니 재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 병이 있다는 것 외에는 제대로 이해



● GOT293u/ml, GPT30u/ml, LDH804Units 등으로 나와 병의 진전 상황이 상당히 좋지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전문의의 재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견해를 찾아갔지요.』

김옥순씨는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누구든지 건강을 위한 기본지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옥순씨를 검사했던 병리사 최인숙씨는, 『김옥순씨는 간장질환 관계수치가 GOT 293u/ml, GPT30u/ml, LDH804Units 등으로 나와 병의 진전 상황이 상당히 좋지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전문의의 재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라고 김옥순씨의 판독결과를 설명하면서 병원에 빨리 가볼것을 권했다고 얘기했다.

『정말 최인숙씨께 감사해요.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지요.』라고 얘기하는 김옥순씨의 눈에는 감사의 물결이 넘쳐 흐르는 듯했다.

『그렇지만, 당시엔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약만 먹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라고 얘기하면서 김옥순씨는, 그것이 조금만 아프면 약부터 찾던 것이 습관화된 탓이었을 것이라면서 웃었다.

『검사결과서를 들고 약방엘 갔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약을 지어주던 약방에서 결과서를 보더니 병원으로 가라는 말만하고 약은 지어주지 않더군요. 허탈감과

☞ 약이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약을 주지 않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김옥순씨는 설명했다. ☞



막막함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약이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약을 주지 않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김옥순씨는 설명했다.

『그제야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생각했지만 생활에 쫓기면서 차일피일 했더니 병은 걸으로 드러날 정도로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동네 아줌마 한분이 대구에 간을 치료하는 유명한 의사가 한 분 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각 지방에서 환자가 모여들 정도로 용한 의사라니까 딱 생각말고 가보라고 재촉했어요.』

당시 부군 김정수씨가 해외취업중이었기 때문에 살림을 혼자 꾸려나가야 했던 김옥순씨는, 자신이 쓰러지면 자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보내는 일 조차도 힘들어지겠다는 생각,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권유와 격려 덕분에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늦게야 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다.

**처음에는 간염이었는데 점차 나빠지면서
간기능까지 나빠지기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대구로 왔습니다. 「동대구의원」이었어요. 의사선생님의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간 결과서를 보시고, 몇가지 질문과 함께 진찰을 해보신 후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제 병이 처음에는 간염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나빠지면서 간기능까지 나빠지기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5월 13일에 다시 건강 진단을 해봤지요. 결과는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그 기쁨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약을 1개월가량 복용하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약을 1개월가량 복용하면서, 건협과 병원에서 지도해 준대로 식이요법도 하고 안정을 취하자 하루가 달라지게 회복되어가기 시작했다면서 김옥순씨는 기쁨에 가득차 얘기했다.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음을 절감해야 했다.

『지난 5월 건협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완쾌 되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그래서 5월 13일에 다시 건강진단을 해봤지요. 결과는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그 기쁨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병원에 찾아가고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동네사람들이 해준 걱정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특히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담도 해주고 잊지않고 일일이 보살펴주신 건협의 친절함과 책임감에 대한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숙여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기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좀더 많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알아서, 이용하게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

이제는 남편도 돌아와 집에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김옥순씨의 표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있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좀더 많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알아서, 많이 이용하게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김옥순씨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풍조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 집안의 주부가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시 함께 있으면서 격려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합니다. 지금은 그저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뿐입니다.』

김옥순씨가 그동안의 일을 회고하는 동안 아무 말없이 계속 미소를 띄고 듣고 있던 부군 김창수씨는 마지막에 감사한다는 말로 자신의 깊은 마음을 모두 표현해 주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오후의 태양, 그것은 김옥순씨의 되찾은 건강을 표현해 주는 것과는 같은 것이었다.

부산의 싱싱한 생선냄새, 건강한 사람들의 웃음과 감사를 뒤로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의,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음을 절감해야 했다.